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며 해체 및 재조립이 용이한 반동산을 설계하는 일은 건축가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민법 제99조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不動産으로 전제하고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動産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이에 따라 ‘한곳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동산으로 구분하여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한다. 콘크리트와 철골로 두꺼운 기둥과 벽체를 쌓은 육중한 아파트나 건축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니 ‘부不’동산動産인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극(동산)과 극(부동산)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자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동산에 속하면서도 자산적 가치로는 부동산에 속하는 대상물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은 늘 움직이는 동산임에도 사실상 경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건축물 중에서도 동산의 영역에 보다 가까운 것이 있지 않을까?

최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 반동산半動産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와세다 대학교 야스타카 요시무라 교수는 동산과 부동산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면서 ‘건물이되 부동산이 아닌 건축’에 주목해 이를 반동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거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반동산의 건축물은 ‘멈춰 있지 않고, 크지 않고, 무겁지 않고, 기존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집 형태를 띠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를 ‘세미 무버블semi-movable’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얼마 전 그는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여 근현대 시기 세계적인 건축물 중 이에 해당하는 유명 주택을 건축 연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러한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명 가구 디자이너이기도 한 프랑스 건축가 장 푸르베Jean Prouvé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 보급 문제가 시급해지자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으면서도 이동이 용이한 ‘장 푸르베 하우스’를 제안했다. 공업화 시대 당시의 기술과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지탱하는 대형 컴퍼스 같은 기둥과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도어, 나무 패널 사이딩 등으로 주택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건설 단가를 낮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6m×6m, 8m×8m, 6m×9m 규모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장 푸르베 하우스는 3명의 인력으로 볼트 결합만을 사용해 불과 이틀 만에 현장에서 완성할 수 있었으며 해체 및 운송도 쉬웠다.

1960년대에 등장한 버블 하우스Bouuble House는 6개의 곡면 플라스틱 셸 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었다. 프랑스 건축가 장뱅자맹 마네발Jean-Benjamin Maneval이 설계했으며, 미래지향적인 형상만큼이나 기존 건축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버블 하우스는 동일한 모듈로 이루어진, 폴리에스터 셸 구조 벽체와 메타크릴레이트 곡면 창으로 구성된 방 2개, 현관, 주방, 화장실이 포함된 36㎡의 주거 단위가 하나의 유닛이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6개의 셸 구조 벽체는 모두 포개어 접칠 수 있었고, 무게 또한 1.5톤에 불과해 차량 1대에 모든 자재를 적재할 수 있으며 운송·보관 및 설치·해체

이양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다년간 시공 회사와 설계 사무소에 근무한 후, 엘리펀츠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집 짓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항상 디자인 이상의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운서동주택, 아름동주택, 도담동주택 등이 있다. studio-elephants.com

가 용이했다. 좌우 대칭 형태로 인해 중앙 코어부에만 최소한의 지지대를 설치하되, 그 외 부분은 공중에 떠 있도록 설계했으며, 연결 모듈에 따라 건물이 무한대로 수평 확장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체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주거의 개별 요소 및 부품이 하나의 주거를 구성할 수 있다면 비슷한 개념의 개별 주거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부터 50여 년 전, 건축가 구로가와 기쇼는 일본 메타볼리즘 건축 사조의 대표 건물로 손꼽히는 나카진 캡슐 타워Nakagin Capsule Tower를 설계했다. 이 건물의 나무줄기와와 같은 코어부는 엘리베이터, 계단, 설비 배관, 전기 배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건축물처럼 영속적인 방식(콘크리트 타워)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140여 개의 개별 주거 시설은 언제든지 교체와 설치, 해체가 용이하도록 2.5m×4.0m 크기의 금속 트러스 구조에 일체형 데스크와 침실, 화장실 등의 동일한 주거 타입으로 제작했으며, 코어 타워에 유닛당 불과 4개의 고정력 볼트만으로 매달리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사전 제작한 캡슐 주거 유닛 및 기성 생산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계단 등을 활용하여 11층과 13층으로 구성된 2개의 캡슐 타워를 불과 3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별 유닛 교체 주기인 2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나, 개별 주거를 언제든지 부품처럼 통째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 흔치 않은 선례다.

이 밖에도 광의적인 반동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건물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모듈러 하우스 공법을 활용하여 지은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는 올림픽 종료 후 300여 개 객실을 해체·이동·재조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2016년 미국의 건축설계 회사 숏Shop은 다양한 350개의 유닛 주거를 사전 제작 후 운반해 현장 설치함으로써 32층짜리 세계 최고층 모듈러 빌딩을 완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동산 건축물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항구적인 영속성을 전제로 건설업 특유의 현장 시공 방식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면, 반동산을 비롯한 비부동산적 성격의 건축물은 공장 및 사전 제작 방식의 제조업화된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반동산의 본질은 비부동산적 특성을 전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외에도 ‘일반적인 건설업에 기반한 주거 건물’이 아닌, ‘제조업화된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건축물의 디자인 방식과도 관련하여 DfMA(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같

은 개념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건축설계는 대량생산을 고려한 산업 디자인에 비해, 수제 양복점의 방식처럼 장소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 customization한 고정 불변의 단일 건물을 설계하는 활동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며 해체 및 재조립이 용이한 반동산을 설계하는 일은 건축가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부동산인 듯 아닌 듯한 반동산’에 속하는 건축물이 더욱 많아 지기를 기원한다.